

우리는 책방에서 배운다



2021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성과자료집

2021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성과자료집

**우리는
책방에서
배운다**

목차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2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지도	6

우리가 책방에 모여 배운 것들

과학책방 갈다	8
도도봉봉	11
도화복스	14
바람길서점	17
사슴책방	20
살롱드북	23
새벽감성1집	26
아운트	29
역사책방	32
원테이블	35
자상한시간	38
정치발전소	41

지금의세상	44
책방꿀	47
책방남산	50
책방오늘	53
책인감	56
꼭꼭꼭	59
한평책방	62
호수책장	65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은

사업 목적

- 동네서점 기반의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
- 인문학 평생학습 참여공간으로서의 동네서점 지원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사업 기간

2021년 5월~11월 19일까지



선정 규모

서울시 동네서점 20개소(15개 자치구)

사업 내용

서점의 문화콘텐츠 전문성을 기반으로 열리는 북세미나, 토론, 낭독회, 독서클럽,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동네 책방배움터사업관계자역량강화연수 개최

- 목적
 - » 동네서점 운영 활성화 및 북퍼실리테이터 전문성 신장
 - » 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성과 확산

대상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실무자 및 관계자



- 일정 10/19~20, 10/25~26 (총 16시간)
-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활용 수업)
- 주요 내용
 - » 북퍼실리테이션 양성 교육 연수(8시간)
 - » 서점 운영 비전 설정 및 디자인 씽킹 교육 연수(8시간)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목적

- » 동네서점 특성에 따른 주제별 컨설팅을 통해 발전 방안 도출
- » 동네서점 사업 추진동력 강화 및 사업성과 관리·확대

● 대상

사업 참여 동네서점 20곳

● 방법

사업 참여 동네서점의 사업 운영·경영·홍보 등 컨설팅 주제
별로 컨설팅위원과 동네서점을 1:1로 매칭하여 현장 컨설팅
운영

사업 성과공유회 <동네책방은 살아있다> 개최

● 일시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5~8시 30분

● 대상 서울시민 및 사업 관계자

● 방법 유튜브

● 주요 행사 내용

- » [북토크] 동네책방에 관하여 임경선 작가
- » [영상 시청] 2021년 속 동네책방

- » [사례 공유] 동네책방의 오늘과 내일
- » [사전신청 이벤트] "책 속의 한마디"
- » [구글미트 진행] 온라인 북클럽 핫모기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지도



우리가 책방에 모여 배운 것들

과학책방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과학책 저자들이 편당을 해서 문을 연 책방이다. 과학이 지식을 넘어 문화가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과학책을 큐레이션하여 판매하고, 과학책 저자를 초청한 북토크와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10길 18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1. 빅 히스토리, 과학책에서 인생의 의미 발견하기

왜 빅 히스토리인가? · 빅 히스토리와 우주 · 빅 히스토리와 생명 · 빅 히스토리와 인간

2. 과학으로 발견하는 여성

'젠더 데이터 공백'이란? · 일상, 노동 · 설계, 공공 · 의료, 재난

3. 돈을 버는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가장 경제적인 사고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 너무 큰 숫자라 실감이 안 난다면?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책에서 인생의 의미 발견하기

〈빅 히스토리, 과학책에서 인생의 의미 발견하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인류에게 동시에 닥친 초유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거시적 관점과 앞으로부터 나오는 평온함을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북돋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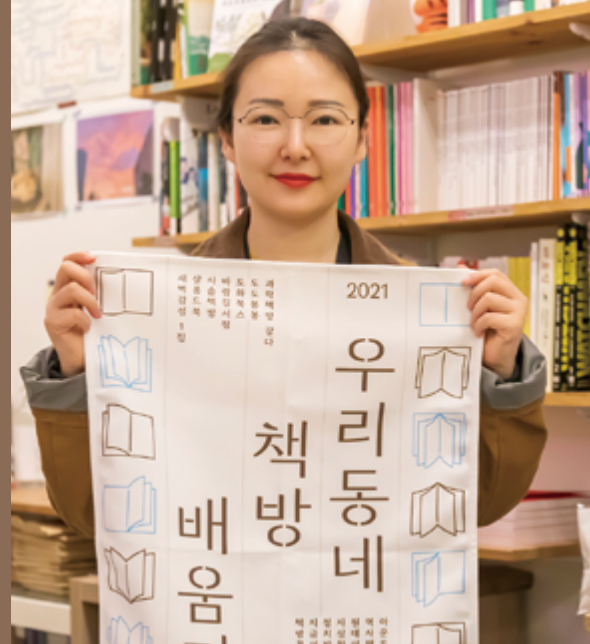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과학도서를 전문 모더레이터와 함께 읽고 토론한 성취감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른 과학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과학의 범위가 학문 그 이상으로 넓으며, 역사와 여성, 경제처럼 인문학에 속해있다고 여겼던 분야 역시 과학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도도봉봉

'친구네 거실 같은 서점'을 목표로 느슨한 문화 연대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책방이다. 독립서점이자 문학서점으로 주로 소설과 에세이, 시집을 다루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4길 57 1층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뒷받침

동네서점이 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게 현실인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새롭게

이번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도한 주제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성, 과학적 태도를 주제로 하는 다른 책 모임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개선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1. 서양 인문학의 뿌리 - 처음 읽는 그리스 신화

불멸의 존재: 신들에 관하여 · 올림포스 신들과 상징의 세계 · 신들에게 묻는 인간의 도덕과 운명 · 예술로 보는 그리스 신화

2. 문학비평가와 함께하는 서브컬처 가이드

SF와 휴머노이드 · 검은 욕망 누아르 · 탐미의 완성 BL · 여성의 장르, 로맨스

3. 등단작가들이 안내하는, 일상을 탐구하는 문학의 언어들

일상을 탐구하는 문학의 언어들: 시인과 함께 일상에서 발견한 순간을 에세이로 기록하는 시간



서양 인문학의 뿌리 - 처음 읽는 그리스 신화

그동안 버리고 버려던 그리스 신화를 회원 모두 끝까지 완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신화학자 장영란의 책은 '왜 우리가 신화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챕터마다 안내하며 진행하기에 읽기에 수월했습니다. 모임 동안 2차 창작물도 만들었는데 신화를 활용해 이야기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작가가 안내하는 서브컬처 가이드

실제로 책을 낸 작가들 또는 현업에서 장르 작가로 활동하는 이들의 모임이어서 창작자를 꿈꾸는 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현업작가가 아니면 해 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인들이 안내하는, 일상을 탐구하는 문학의 언어들

글을 써왔던 사람들이 주로 신청해 자신들의 글을 갈무리하고, 일상에서 소재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종다양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점의 한계를 넓히는 경험

인문학 모임을 기획하며 평소에 해보고 싶던 걸 시도해보니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어 무척 신기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덕분에 모임의 한계를 넓혔고, 좀을 통해 전국 단위로 모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도 인문학 모임을 통해 활동 반경이 좁아진 사람들에게 서점이 작지만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화복스

도시인들을 위한 F&B 콘텐츠를 운영하는 도화 아파트먼트 북랩으로 도시생활자들을 위한 큐레이션 책방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시소소 플레이키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27 3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과학, 도시생활자를 만나다

모든 진화는 공진화다 · 아름다움은 심리적 현상일까 수리적 현상일까 ·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 팬데믹과 함께하는 세상 · 더 나은 밥상, 세상을 바꾸다 ·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그림책과 시, 도시생활자를 만나다

그림책이 일러주는 시의 순간 · 그림책 안으로 들어온 시 ·

나를 그려보는 시간 · 꿈을 되살펴보는 시간

맥주, 도시생활자를 만나다

세계 맥주 역사와 브루어리 여행

건축, 도시생활자를 만나다

한국의 과거에서 세계의 미래를 만나다 · All Seoul Tomorrow & Social sculptures

새로운 도전이었던 건축 토크

(전)현대자동차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준영님과 함께 프리츠커상을 받은 여러 건축가들과의 대화로 바라본 한국적 미로 바라보는 자세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2시간 이상 진행이 되었어요. 기존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과학 프로그램을 동네서점에서 대중화를 모색해본 시도였습니다.

동시통역을 시도한 프로그램

네이버 웹툰 <서울크로니클>의 저자이자 서울 거주 중인 벨기에 출신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로랑 페레이라와 함께 하는 건축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동시통역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처음 해 봐서 쉽지 않았지만, 평소 동네서점에서 다루지 못했던 건축과 서울의 미래의 이야기를 나눈 자리라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건축, 도시생활자를 만



나다) 2회차 행사는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책방의 역할

코로나19는 늘 멀리 떠나기를 우선으로 하던 여행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네를 바라보고 여행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골목이 가진 선한 영향력에 끼칠 수 있는 채널로

서점이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오히려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주체적인 공간이자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길서점

여행 책과 커피, 와인을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서점이다. 미술, 공예, 사진 전시를 하고 인문독서모임과 일반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32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감정반상회

내 감정 소개하기 · 내 영혼 찾기 · 감정 원인 찾기 · 변화된 감정 마주하기

내가 만드는 여행 스티커

여행지 그리기 · 대표건물 그리기 · 대표음식 그리기 · 교통수단 그리기 · 스티커를 위한 그림

나만의 장서표 만들기

장서표란 · 장서표 만들기

궁으로 만나는 조선 역사 이야기

조선 초기 역사 · 조선 중기 역사 · 조선 후기 역사 · 후기 역사와 강점기



상처를 돌보는 감정반상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감정반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분들 모두 마음을 열고 참여하시는 모습이 모두 다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드로잉 수업도 진행했는데 그림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참여자 분들에게 20장씩 나눠드렸습니다. 다들 만족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궁으로 만나는 역사 여행

예전이면 낙엽 날리는 가을에 참 많이 찾아가던 궁을 이제는 쉽게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궁으로 만나는 역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섯 개 궁의 전각을 소개하고 그 전각에서 일어난 조선 시대 일들을 조선왕조실록으로 풀어준 시간이었습니.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서표 만들기

'과연 온라인으로 조각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해소시켜준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교감하며 자신만의 장서표를 만들었고 오프라인 전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함께

학습자 분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어 좋



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동네에서 열리는 수업에 큰 시간적 준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서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방배움터의 홍보 덕분에 보다 많은 분들이 바람길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어 콘서트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슴책방

그림책 전문 서점으로 다성적인 시각과 주제를 담은 그림책과 아트북, 그래픽 노블 등 시각예술 분야의 책을 소개한다.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과 조형성을 갖추어나가는 작업물들을 큐레이션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3길 110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시그림책 만들기 워크숍

다양한 그림책 시그림책 소개 · 장면 구성하기 · 시그림책 디자인 · 시그림책 바인딩

여행에세이 드로잉

여행 드로잉북 살펴보기 · 여행 드로잉북 연구 및 그리기 · 다양한 재료 이용하기 · 여행 드로잉북 실습 및 바인딩

성인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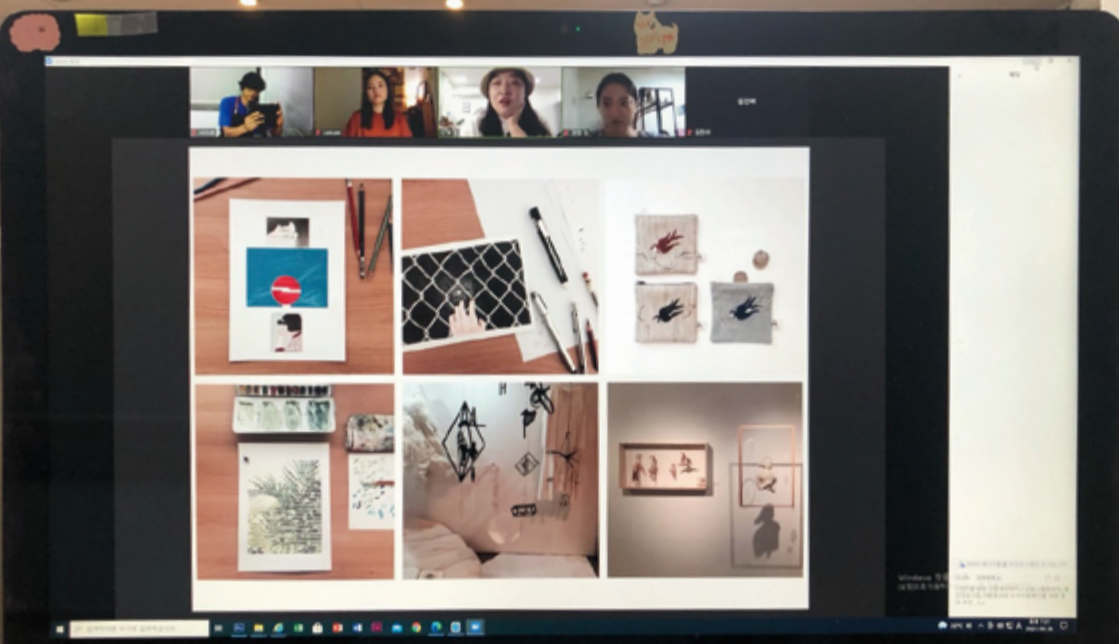
성인을 위한 그림책 소개 · 〈사탕이 녹을 때까지〉 작업 이야기 · 박혜미 작가와의 만남

시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시그림책 만들기〉는 그림책 작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시 창작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시와 그림이 엮어내는 재미를 함께 즐겨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은유하고 사유하는 발상의 전개들과 시적 이미지의 컷들이 어떻게 책이라는 콘텐츠로 방향을 갖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창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인 그림책의 세계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를 이해하는 범위가 확장이 되었으며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책 제작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참여자들이 출판 과정에 친숙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책이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슴책방은 성인 그림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고 덕분에 참여자



살롱드북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인문 분야 도서를 소개하며, 책을 읽으며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점. 'salon'의 어원처럼 문화적 소통을 지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1길 11 1층



들도 성인 그림책의 확장된 문해력을 얻게 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창작자로의 길을 보여주다

여행 드로잉 실습이나 인디디자인과 같은 실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제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창작자로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분들의 학습 결과물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트북이나 더미

북을 만들게 되었는데 좀 더 확장된 상태로의 책을 접근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고 후기를 들었습니다.

책방의 새로운 가능성

책방 공간이 사업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교육의 현장과 독자와의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시내詩內 살롱 - 시 안에서 보내는 시간

영화를 담은 시 · 민구 시인의 초여름 낭독회 · 최갑수 시인의 낭독회 · 허연 시인의 시와 노래

문학살롱 - 독서/토론

자유문학살롱 · 고전문학살롱 <자기만의 방> · 사회문학살롱 <별 것 아닌 선의> · 우리의 필사적 필사

1인분 살롱 - 1인분 인문학 여행

N잡러 시대 · 1인분 토크 살롱 · <일인분의 삶> 이슬기 작가 북토크 · 1인분 플리마켓



고민을 나누고 돕는 일

〈1인분 살롱〉은 서울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이나 소통에 관해 늘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1인분 살롱〉 안에 1인가구와 관련된 총 4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습니다.

1인 출판과 서점을 운영하는 지역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과 더불어 1인가구들의 고민과 삶을 나누는 살롱을 운영하고 1인가구로 살아가는 동시대의 청년 '일인분의 삶' 작가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1인 소상공인들과 지역청년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1인분 살롱〉 참여자들이 혼자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과 공감들을 나누며 모임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간 지

속적으로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뿌듯했습니다.

시와 가까워지는 계기

〈시내 살롱〉은 시인들을 직접 만나 시를 듣고, 다양한 장르와 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모여 시라는 장르를 좀 더 편안하게 즐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동네 사랑방

책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도해 보면서 살롱드북만의 매력이 담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멀리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벽감성집

독립출판물과 여행, 고양이에 관한 책을 주로 소개하며 커피, 차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행도서 저자이자 독립출판사 '새벽감성' 김지선 대표가 운영하는 공간.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50길 16-8 1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나를 마주하는 10주

나를 소개하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 · 나를 마주하는 10주 ·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 · 내 인생의 10가지 질문 찾기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내 마음을 읽는 시간

과거의 한 순간 떼어서 글로 적어 보기 · 내 감정은 어떤 모

습일까요 · 컬러와 그림으로 살펴본 내 마음의 감정 · 감정에 관한 인문학 독서 모임

삶과 죽음의 인문학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 · 예술가의 중년 이후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나를 마주하는 10주

산티아고 순례길을 3번 걸었어요. 걸으면서 사람들은 이 길에서 무엇을 찾길 원하는가, 이 길이 어떤 답을 해주길 바랄까 생각했죠. 그런데 그 길도 결국 '적절한 질문'이 있어야만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마주하는 10주〉를 통해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답변하며, 내 인생의 질문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방의 가능성

서울의 서쪽 지역은 부천,인천,김포 등과 인접해 있는데, 강서,양천 지역과 가장 가까운 부천 등에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는 책방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 예로,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같은 경우는 신청 받기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대기자를 포함해 마감되었고, 추가 신청 여



아운트

책방지기가 읽은 책 중에 같이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주말 책방이다. 선물용 책은 박음질한 크래프트 종이와 삼끈, 가죽 라벨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준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54 101호



부를 끊임없이 문의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작은 책방까지 발길을 끄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주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큰 서점의 꿈

온라인 전향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에 특화된 각종 장비들을 차례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책 판매를

넘어서 책을 문화로 소개할 수 있고, 그 문화들을 콘텐츠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다음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책방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점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대에 앞장 서 나가고 싶어요.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코로나, 변화 그리고 연결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 · 코로나가 변화시킬 우리의 공간 ·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책읽기 · 나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 여행 ·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

크래프트 테라피 워크숍

심플라이프 크래프트 테라피

문화 속 재난, 현실과 판타지

모두의 운명을 바꾼 사고, 그 후 · 치명적인 전염병, 종말 이후 · 신종 바이러스로 홀로 남겨진 소녀

작은 시작의 변화

환경을 위한 제로웨이트 생활 · 불안, 분노를 잠재우는 마음챙김 · 업사이클링 북아트 ·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라이프



〈작은 시작의 변화〉를 제안하다

지난해부터 우리 모두 힘들고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생활과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서 제로웨이스트, 마음챙김, 업사이클링, 비거니즘 등의 주제를 선정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책들을 읽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기 위해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라는 주제도서를 선정하고 북클럽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난 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클럽 자리에 텀블러와 천주머니를 지참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분, 다음날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



에 신청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변화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 의욕과 자극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기회를

북큐레이터가 함께하는 비정기 독서모임 ‘아운트 북클럽’,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운트 워크숍’, 아운트를 개

인의 서재로 이용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운트 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역사책방

역사를 좋아하는 책방지기가 문을 연 역사 전문 서점이다. 역사와 놀며 이야기하는 광장으로만 들어가고자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4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유라시아 문명탐방

코카사스 고대국가와 문명 교류 · 황금의 나라 신라와 유라시아 · 현생 인류의 탄생 · 몽골과 흉노 · 스키타이 · 해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고대국가

서촌주민 살다보니

인왕제색도 · 서촌건축 탐구 · 서촌 바닷전

그들은 왜? (문제적 인물 읽기)

마키아벨리 · 마가렛 대처 · 사무라이 · 이완용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네 답사

〈서촌주민 살다보니〉 프로그램을 통해 서촌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모두 직업이 있는 바쁜 사회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서촌을 공부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장동서가라는 책나눔 행사도 하고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들을 알리고 돕고 싶었습니다.

맨홀 전시회로 이어진 모임

모임을 서촌탐구로 이름 짓고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촌 일대의 맨홀을 탁본을 떠 작은 전시회를 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서점

〈유라시아 문명탐방〉을 통해 듣기 어려운 교수님의



원테이블

'want able'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꿈꾸는 책방. 십시일반 책방 임대료를 내어가며 운영하는 책방, 동네 사람들이 책을 먼저 주문하고 찾아오는 커뮤니티 기반의 책방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14 안채



질 높은 강연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 단순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 목적성 모임을 통해 주민들과 서점이 함께 의논하고 이벤트를 만들어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촌주민모임의 경

우 3년 정도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보니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쌓인 후에야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책방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해 가는 것, 보다 좋은 내용을 채워나가 가는 것, 더 많은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작가 초대 북토크 '독립출판물 작가를 만나다'

라틴빛다 · 당신의 계절이 지나가면 · 어떤사람 A to Z

과학을 만나다

신소재와 미래사회 · 심리 뇌과학의 세계 ·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동네사람을 만나다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 브라질타악에 빠지다 · 공간을 재구성하다

예술을 만나다

향초테라피 · 수상한콘서트 · 낭독극



상상이 실현되는 공간

〈동네사람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습니다.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일상이 상상으로 실현되는 곳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작은 단위의 소통 창구

평생학습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배움의 공간이

내 집 주변에 그리고 내가 퇴근한 후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다소 안전하게 작은 단위로 모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책방의 장점입니다. '점점 크게'가 아니라 '점점 작게' 골목 안으로 들어온 공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기억나는 얼굴들

거리 두기가 4단계 격상으로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때에 따라 지침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이 어려웠습니다. 공간 자체의 방침에 따라 운영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되, 문제 상황 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했던 일정들이 미뤄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서 일정들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먼 거리에서 2시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달려와 주신 분, 낭독극을 보며 눈물을 흘치시는 분, 음악에 취해 살짝 고개를 떨구며 찰나의 잠을 청하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를 통해 새로운 분야로도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고, 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의 장으로 인식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상한시간

자상한 벗들을 위한 5가지 테마의 큐레이션 서가를 운영한다.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하는 공간이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길 59 1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듣는 사람을 위한 클래식 가이드

감정으로 읽기 · 이미지로 읽기 · 수시로 읽기

나를 발견하는 삶의 질문들! - 질문하는 글쓰기

당신의 삶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 삶의 질문을 글로 써보기 · 자신이 쓴 글 낭독하기

미술관 산책 -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루브르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 프라도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 내셔널갤러리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 바티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 우피치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의문부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지만 과연 제대로 관람하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단 한 작품을 보더라도 유익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미술관 산책 -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강의로 이어지는

미술사의 흐름, 시대적 배경, 미술사조에 대한 설명 등을 토대로 그림을 살펴보다 보니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두가 이 재미난 강의를 듣기에는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강의 때는 참여자 모두가 재강의를 요청했었고,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미술컨텐츠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 문화의 거점

동네서점이 지역 문화의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거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문화의 다양성(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콘텐츠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 프로그램화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동네서점과 문학/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공문화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지원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발전소

정치사회 전문 서점으로 정치와 사회 분야의 책을 소개한다.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를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슬로건으로, 정치와 시민이 가까워지는 공간, 정치가 놓치고 있는 시민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7길 8 2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새로운 세상의 민주주의를 질문하다

우리 시대의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사는 것'을 넘어 '사는 곳'으로의 집 · 친화력은 인류를 어떻게 생존시켰나 · '정체성 정치' 정말 극복해야 할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 세계정치의 변화

시진핑 시대,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 대만의 디지털

털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 스가시대, 일본시민사회의 고민과 변화

덜 너그러운 시대의 편협한 사회 읽기 - 사회심리학 독서모임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기 · 공동체를 말하기 · 진실과 비진실을 구별하기 · 정의와 폭력 다시 생각하기



고립되지 않고 변화를 이야기하기

정치사회 전문서점인 정치발전소의 특화된 장점을 살리면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와 세계,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변화,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이성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덜 너그러운 시대의 편협한 사회 읽기

정치, 세대, 성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다투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지금의 현상을 읽고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자 '서로 다른 옳음을 이해하는' 〈바른 마음〉과 '덜 너그러운 시대'를 읽는 〈나쁜 교육〉 두 권의 책을 선정하여 '덜 너그러운 세대의 서로 다른 옳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독서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민주주의를 질문하다

책을 매개로 한 노동, 복지, 과학, 정치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이슈들을 진단함으로 각 주제별 쟁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공생 네트워크

도서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정치사회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판사-강사-서점-참여자'가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단편적인 강사 섭외에 그치지 않고 출판사와도 연계하면서 정치사회 서점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

‘다섯 개 세상 속, 다섯 가지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갈망’, ‘미래에대한 두려움’, ‘마음의 편안함’, ‘사랑에 대한 감정’, ‘지적 호기심’으로 구성 된 다섯 가지 테마에 맞는 책을 각 5권씩, 총 25권만 판매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41 1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사색 질문

나는 대화를 잘 하고 있을까 · 요즘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모여라 사당! 사당동 마을 여행

사당동에 있는 '사당' 이야기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소재 찾기 · 글쓰기와 공유하기 · 글 모음집 자체 발간 기획

지세(지금의 세상) 우리밤

'지금' '세상' '우리' '밤'과 연관된 책 읽고 밤의 대화 나누기

지금의 살롱 - 혼자 남겨진 시간

김희영 작가 <혼자만의 시간> 소개 · 혼자만의 시간 공유

업사이클링 수업

재활용 가죽 북커버 · 자투리 가죽 북악세서리

내가 사는 우리동네

지금의 세상은 동네 기반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동네 이웃들과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우리동네>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사실 참여비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질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콘텐츠는 <사당동 마을 여행>

이었는데요. 환승지로만 인식되던 사당동, 사실은 알아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사당동을 연구한 '동작뉴스' 김국제 대표와 함께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라는 슬로건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손님들의 발길을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



책방골

퀴어 페미니스트 전문 서점. 성 소수자와 페미니스트를 위한 도서 및 독립출판물을 소개한다. 누락된 존재, 지워진 얼굴, 막혔던 입이 우리의 책장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책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나길 18 112호



련하였고, 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만이 아닌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라는 큰 슬로건이 주어지니 조금 더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서점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지나가기만 했던 책방에 이번 기회로 방문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치유의 공간, 지금의 세상

4년차부터는 ‘치유의 공간’이 되겠다 다짐했어요. 지금의 세상의 다양한 콘텐츠로 각자 앞으로 나아갈 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만큼 지세도 저도 성장통을 겪어야겠지만, 그것 또한 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감염병의 인문학 <애도와 투쟁> 북세미나

한국사회의 HIV/AIDS, 낙인과 차별 · 우리의 문란한 사랑을 계속하는 법 · 감염병과 돌봄

기후위기의 인문학

내가 버리는 것이 곧 나이다 ·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다 · 나는 쓰레기를 덕질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함께살기의 인문학

나와 함께 살기 · 페미니스트로 함께 살기 · 동물과 함께 살기 · 질병과 함께 살기 · 마음의 병과 함께 살기



감염병의 인문학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사회의 대처가 HIV라는 오래된 감염병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HIV 이슈는 감염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이슈라 대중 강연을 열기에는 강연자 섭외 부담으로 책방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을 통해 연속된 북토크 강의를 열 수 있었고 기존에 감염병 이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도 이슈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살기의 인문학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인가구를 연결하고, 부모돌봄과



자기돌봄에 대한 비혼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비인간동물과 인간동물의 위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코로나 시대에 2-30대의 우울증 비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청자수를 기록했는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에서 받은 공간 컨설팅이 앞으로 서점을 꾸려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을 참고하여 최근에 책방 배치를 바꿔보았는데 좀 더 서점다운 느낌을 받아가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방남산

독립출판물과 매거진, 인문교양, 에세이 분야의 책을 소개하며, 일러스트 상품 등을 판매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혼로 121-1 1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기후위기, 지금 알아도 늦었어요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 거대도시 서울 철도 · 내일 지구

영화로 읽는 물리학

퀀텀의 비밀 · 차원을 뛰어넘은 이해 ·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의 하루를 조명하는 인문학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 남매의 여름밤 · 숲속의 자본주의자 ·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랩걸

요가와 책 모임이 있는 곳

이번 해에는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 스타트업과의 콜라보 책방 운영 등 다양한 시도로 책방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보고자 했어요. 지난달까지 요가 코칭 스타트업 웰리와 함께 '웰리 실험실' 큐레이션 책방을 꾸려 요가+책 모임, 웰니스 토크, 차담 등을 진행했고, 현재 소모임 스타트업 위드살롱과 함께 협업을 통해 2~30대 청년들의 고민을 책과 함께 대화로 풀어보는

북클럽, 독서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네책방 배움터 사업으로 영<화로 읽는 물리학>, <독립영화 토크> 등도 정말 즐겁게 진행했어요.

기후위기, 지금 알아도 늦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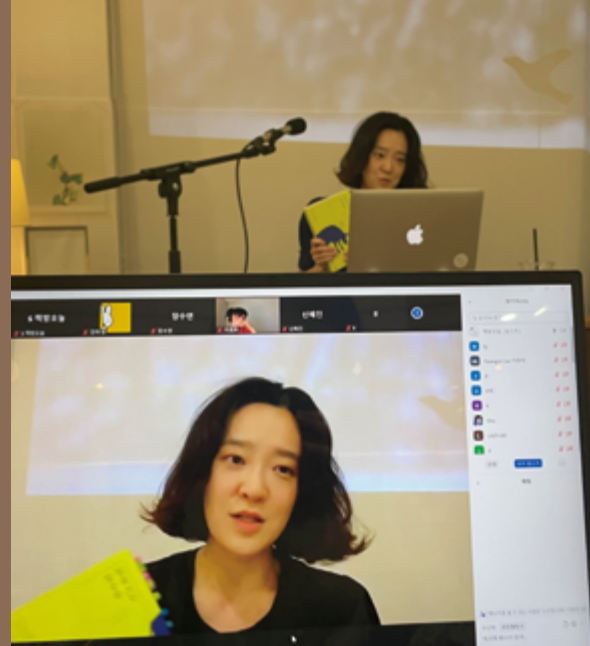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조금 진지하고 조금 어려워도 호기심 또는 관심을 가질 분들이



책방오늘

문학 분야의 책과 그림책을 소개하며 독서모임과 북토크를 열고 있다. 인문적 가치들을 산소처럼 마실 수 있는 작은 허파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1층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예상은 맞아 떨어졌어요. 참여자 분들께서 유익한 강의였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했어요.

특히 '프로참석러'분들이 생겨 기뻐했습니다. 3회 연속, 그 다음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거겠죠? '정말 좋았다', '또 열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역시 '이 프로그램을 열기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

책방 배움터 사업은 기후변화, 물리학, 독립영화 등 다방면에서 인문학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소 어려워 보이는 혹은 수요가 없어 보이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산책하는 시

'산책'하는 시 · 산책하는 '시'

문학과 장애학

동화로 읽는 장애학 입문 · 장애학 이론과 역사 · 쿼어 장애 정치학 · 장애의 틀을 넘어 동물권으로

일인칭의 시간

나의 몸 · 나의 하루 · 나의 꿈 · 나의 도시 · 나의 아카이브 · 나의 글



문학과 장애학 함께읽기

올해 초에 출간된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으며 책방에서 장애와, 장애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장애학에 문학을 연결하여 다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를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지금의 혐오와 차

별에 대해, 또 차별 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성별, 나이, 직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하게 된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넓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다

그동안 책방에서 자체 진행해온 프로그램들의 경우,



강사비 지급을 위해 참가비 금액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동네 책방배움터 사업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사업비로 강사비를 충당함으로써 참가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고, 그동안 참가비의 장벽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던 분들이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심층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발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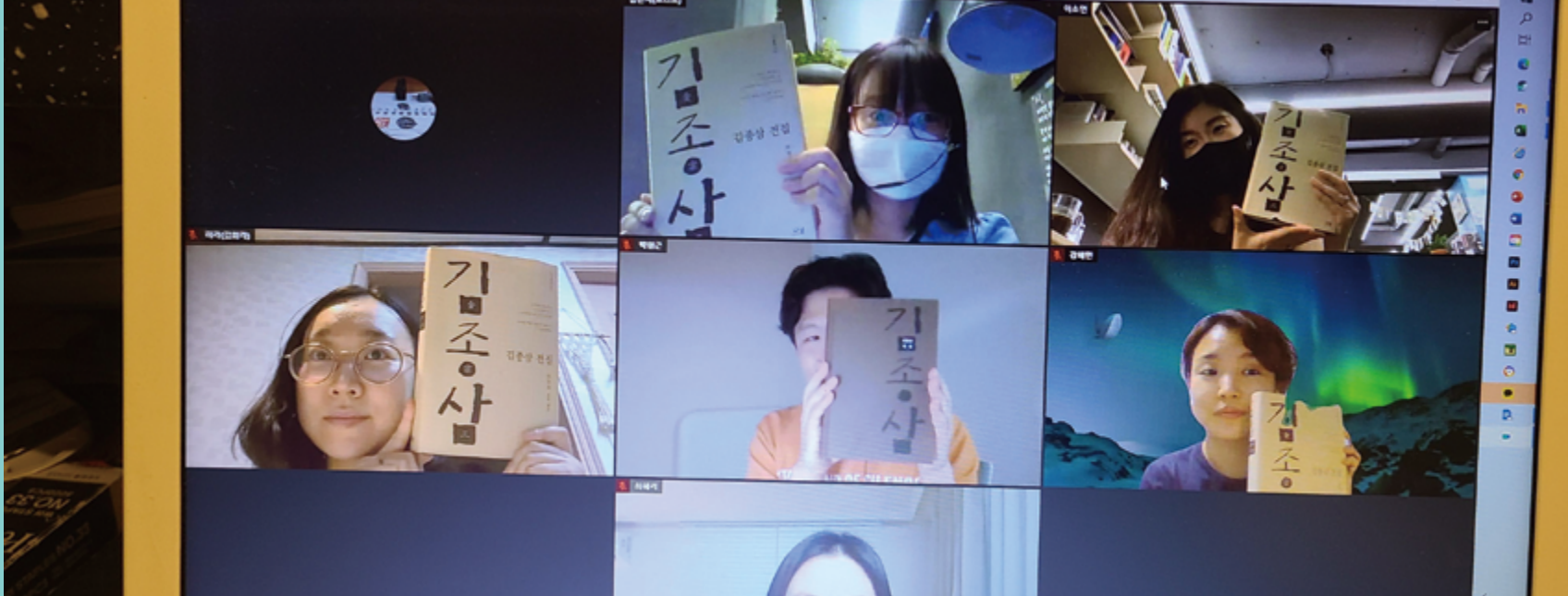
느슨한 연대를 꿈꿔요

서가에 있는 책들 한 권, 한 권이 서로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되고, 대화의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 느슨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참여를 계기로 기획하고 실행해본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더 확장시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책인감

사람이 모이고 감성이 있는 서점 겸 카페. 책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2길 63-1 2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김은지 시인과 <김종삼 전집> 읽기

1953~1964년 작품 감상 · 1965~1969년 작품 감상 · 김종삼의 시를 읽고 쓴 시 합평 · 산문 및 신문 기사 중 1편 감상

이소연 시인과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읽기

<젠더 트러블> 서문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 섹스/젠더/욕망의 주제 · 금지, 정신분석학 그리고 이성애적 모태의 생산 · 전복적 몸짓들

독립서점에서 독립서점에 관한 책 함께 읽기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이해하기 · 해외 독립서점 사례 탐구 · 국내 독립서점 사례 탐구 · 한국 독립서점의 미래를 논하다

함께, 토론할 기회

인문 독서 프로그램으로 <김종삼 전집> 읽기와 <젠더 트러블>을 읽고 생각나누기를 진행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젠더 트러블>의 경우 여성, 페미니즘에 관해 참가자들이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서 좋았으며, 참석자에는 남녀가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독립서점에서 독립서점에 관한 책 함께 읽기

현대인들에게 책읽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책과, 책방에 관한 관심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책방에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동네책방/독립서점에 관한 책이나 책방지기들이 쓴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기획을 해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의 동네책방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내가 가본 동네책방, 내가 꿈



꾸는 동네책방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책방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실제 책방 운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을가 하는 마음에 기획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는 올해 말에 오픈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책방 운영을 꿈꾸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책방

책인감은 2022년에는 온라인 강좌를 조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외에 책방 자체적인 강좌로 기존에 해오던 강좌 외에 온라인 강좌를 더 확장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책방 운영에 관한 강좌를 강화해볼 계획입니다.

책책책

그림책 전문 서점 겸 인형 공방. 책방지기가 고른 그림책을 소개하며, 나만의 캐릭터 인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림책 정기구독 서비스 '책가방'을 제공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8 2층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그림책으로 만나는 철학

우리 시대의 다양한 가족을 다룬 그림책 · 어린이의 기쁨과 외로움, 화를 보여주는 그림책 · 코로나 시대에 동물, 동물원에 대한 생각 · 김미자 작가와 함께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 · 그림책 낭독과 가족 인형 만들기

그림책으로 만나는 연대의 의미

그림책으로 만나는 연대 · 김지연 작가와 함께하는 연대 이야기

그림책으로 만나는 지구

그림책으로 만나는 지구 ·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로운 지구 기원 책방 작은 콘서트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문학

그림책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의 장르입니다. 짧은 글과 그림이 만나 때로는 글없는 그림만으로도 직관적이고 쉽게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림책을 통해 우리시대 가치관의 기저를 담아내는 가족, 어린이, 동물에 대해 접근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상을 가족으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그중에서

도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 단위인 가족이 함께 생각해 보고 서로가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토론

그림책 서점의 특성을 활용해 가족, 어린이, 동물, 연대, 지구환경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을 통해 접근하여 다가가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변



하고 다양해지는 여러 유형의 가족을 살펴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치관이나 환경적으로 변하고 인식되는 어린이의 위치, 동물권 등 생명의 가치, 지구 환경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림책을 통해 토론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책과 함께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를 통해 코코코에서 실현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음에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총 12회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코코코 그림책방을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요.

한평책빵

서울혁신파크 후문에 있던 경비실을 고쳐서 만든 커뮤니티 서점. 책방지기와 단골이 추천하는 새 책과 헌책을 소개한다.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통해 연결되고 나눔을 통해 서로 성장한다는 사회적 우정터를 희망하는 의미로 한평책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25동 101호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지구를 위한 독서

천연균에서 찾은 오래된 밀 · 왜 플라스틱이 문제일까 · 내 일 지구 · 소년을 읽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엄마의 골목 · 아비 그리울 때 보라 ·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 나, 황진이

최대한 신부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인생의 은유들'

바다 향해 난파 · 주제와 변주 · 노림의 시간 · 회복하는 마음

괜찮으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2020년 책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를 읽고 이동현 농부가 터를 닦은 10년이 넘는 과정을 읽으며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재를 함께 사는 위인이라는 생각을 했고 농업법인 미실란이 있는 곡성을 두 번 다녀왔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과 자취를 알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삶을 더 지탱하고 싶었습니다. 이동현 농부를 김탁환 작가의 에세이를 통해 알게

된 것에 고마움과 동시에 한 사람의 일상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세상에 널리 알린 통찰에 감탄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탁환 작가의 소설 백담파 시리즈의 주인공들도 책을 통해 모두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을 통해 김탁환 작가의 다른 책,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성찰과 위로의 시간

현대 사회의 가속성은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고독감을 주곤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 결핍은 공동체를 통해 치유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공동체 속에서 더욱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신부의 강자는 고대 철학의 두 가지 상반되지만 꼭 필요한 공동체성과 개인의 관조적 생활 태도,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은은한 성찰의 기

회와 더불어 마음의 힘을 가장 많이 얻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피드백을 들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함께, 더 따뜻하게

서점은 기타 업종에 비해 특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할수록 더 좋은 시너지와 의미를 찾게됨을 다시 배웠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외계층에 문화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배경임을 실감하였습니다.

호수책장

숲해설가이자 그림책 편집자인 책지기가 운영하는 생태 책방이자 주말에 숲에서 책을 함께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그림책 서점이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동네 숲에서 놀고, 함께 그림책을 읽는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132-14



2021년 진행한 프로그램 목록

모두의 그림책

그림책의 역사 · 말려드립니다 · 마흔에 그림책이 건넌 말

아동문학 다시 읽기

나를 키워 준 책 한 권 · 우리가 만나는 문학 · 우리들의 문학 · 나의 아동세계 · 독자 기르는 법

우리들의 시간, 나의 일기

나의 흔적 읽기 · 나의 타임라인 · 나뭇잎 일기1 · 나뭇잎 일기2



'단절'을 잇는 공간과 프로그램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책방으로 경력단절여성성과 주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부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려 오지만, 자신을 위한 책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오히려 '울컥' 하고 엄마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림책으로 어른들의 시간을 갖고자 기획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콕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여성성'이라고만 명칭을 정해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자기 고민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엄마들과 의미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동문학 다시 읽기

강원도와 완도 등 먼 곳에서 신청한 참여자까지 모두가 아동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었고, 습작을 하며 작가가 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많지 않은 지방과 섬 지역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집콕한다는 답답함보다 시점과 나눔의 범위가 넓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

도서관과 문화센터의 인문강좌 등이 있지만 거리상의 문제와 결심의 문제 등으로 참여에 대한 고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zoom업이 다양하게 기획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발간 번호 SLEI-2021-B-018

2021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성과자료집 <우리는 책방에서 배운다>

발행일 2021. 12.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편집인 사업팀 이은주, 최수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427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편집 및 디자인 책덕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